



“환자와 병원 신속히 연결, 응급실 뱅뱅이 막는다” 한덕수 국무총리,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방문

- 병원별 가용 의사와 병상을 신속히 파악, 병원간 전원이 필요할 시 신속히 연결해주는 역할 수행으로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 다해줄 것을 당부,, 관계자들 격려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(화), 3.4일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.

* (참석) 김성중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장,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 등

○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수도권 주요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.

○ 정부는 갑작스런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헤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,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컨트롤하는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당겨서 3.4일 개소하였습니다.

○ 이번에 개소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의 병원별 가용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와 병원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

* 수도권(3.4일 개소), 충청권·전라권·경상권 순차 개소 예정, 타 권역 응급의료상황실 개소 전까지는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이 한시적으로 전국단위의 역할 수행

□ 한 총리는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상황과 병원 응급실 가동률, 응급환자 전원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점검하였습니다.

○ 한 총리는, “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들의 전원을 담당하는 만큼, 상황실의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성현국 (044-200-2293)
		담당자	사무관 김나진 (044-200-2294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